

투데이 칼럼

금붕어 두 마리, 코로나19, 그리고 착한 임대인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는 서로를 미워하며 투하면 싸웠다.

그날도 여김없이 둘은 서로 부딪히고 합력하며 큰 싸움을 벌였고 결국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드디어 혼자서, 쾌적한 환경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윽고 잘살아야 한다고 말 씀해졌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도 하겠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이들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업자들이 시름이 더 깊은 듯 하다. 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



이상길

정읍시의회의 의원

우리나라 지역업 종사자는 약 600여만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곧 지역업 시장이 붕괴되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는 구조라 하겠다.

이런 가운데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인 스스로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감액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나눠 갖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기적, 이 운동에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부터 전지현씨와 비·김태희씨부부, 이효리씨, 서장훈씨 등과 같은 연예인들 공공기관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

서고 있다. 우리 정읍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30% 감면한다. 이로써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 162명이 이달부터 사용료 30%를 감면받게 됐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민간에서의 통합 소식도 이어졌다. 밀양 손씨(孫氏, 회장 손황선) 문중과 문경빌딩 대표인 손경호씨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손씨 문중과 손대표의 결정으로 모두 10개 업소 임차인들이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정읍 지역 업자들의 숨통을 뚫고 한없이 위축돼있는 지역경제에 희망의 바람이 되리라 기대한다.

정부에서도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낮은 임대료의 절반

만큼을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불가분의 관계다. 임차인 없이 임대인은 존재하기 어렵다. 임차인의 업소가 호황을 누리면 매출이 증가하며, 해당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임대인의 건물, 가치 상승으로 임대인의 득이 된다는 애기다. 고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은 곧 임차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길이 아닐까? 서로 합력하고 싸우다 함께 죽는 금붕어들이 아니라 어려움과 희망을 나누며 상생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

코로나19가 초래한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정읍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읍시 방역 활동은 물론 감염예방 위생수칙 준수, 방역 당국 권고 사항 잘 따르기 등 우리 정읍시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시민 의식의 힘이다.

이러한 우리 정읍의 자력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름을 더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착한 임대료 운동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문 대통령도 강조한 실시간 상생운동이 정읍에서도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사설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이 있는데도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한해만 2,400여 명이다. 50-60대가 절반가량이었고, 10명 중 7명은 남성이었다. 2019년 상반기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1,362명이다.

이 가운데 885명은 유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전체의 65%이다. 무연고 장례를 치를 때 유족들은 시신을 지자체에 남긴다는 '시신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예게는 '가족과의 단절'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 수십 년간 연락이 두절됐다. 절반가량이 가족의 해체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무연고자 문제에 직면했다. 일본의 어느 작은 마을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4천여 명이 거주하는 도쿄 오야마 단지는 주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점심 무렵, 주민들이 하나 둘 모이더니, 한 쪽에선 전통 춤을 배우고, 다른 방에선 노래 연습이 한창이다.

공공일자리 인건비 먼저 지급하라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 1만 여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참여자 9,557명의 인건비에 대해 '선 지급, 후 보강'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인건비를 우선 지급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했던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에 돈이 돌면서 위축돼 있는 소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3월 중에 미리 지급된 인건비는 3월분 총 28억원 규모이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관 해설, 도서관 기간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등이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가량이다. 익산시

꽃꽂이와 서예 등 주민 스스로 만든 소모임만 180여 개다.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마을 자치회다. 주민들의 자치회 가입률은 무려 100%로 일본 평균의 두 배다. 주차장 관리나 공원 청소 등도 시의 위탁을 받아 모두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

고령자 입장에서 집 밖으로 나와 운동과 건강을 챙기고 친구까지 만드니, '1석 3조'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가까운 이웃집'이란 점이다. 이웃집에 우편물이 쌓이는 등 이상한 점이 감지되면 반드시 자치회에 연락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쓸쓸한 죽은, 즉 고독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독사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의 거창한 대책이 아닌 바로 가까운 이웃들인 셈이다.

예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 많이 지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그늘인 '무연고자' 문제를 집중 조명해야 할 때이다.

도 중단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 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는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익산시의 대상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관한 공공시설 종사자나 중단된 프로그램 참여자이다. 우선 익산시는 일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천900여명에게 2월분 급여 21억3천만원의 선지급했다. 선지급된 급여는 추후 연장 근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보충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들도 월 단위로 인건비를 선지급하여 참여자들이 당장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직 참여자 선발조차 이뤄지지 않은 8개 사업 75개 일자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선발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기고문

코로나19 대응, 주민의 공감과 협조가 필요할 때

대지와 산천이 먼저 알고 불기운에 생기가 돌지만, 우리는 아직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온기를 빼앗겨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이지 못한 듯하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고, 기침 한 번에 주위 이목을 끄는 웃지 못할 상황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 국내 확산세가 다소 꺾였다하더라도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어떤 그 어떤 예측조차 조심스럽기만 하다.

그때도 고무적인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료·방역 시스템을 세계가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처 능력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름의 대응책을 내놓고 힘든 시기를 벗어 나려 애쓰고 있다.

무주군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이다. 정부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각지역 발열체크 초소 운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 위험군과 취약층 관리 등 감염병 확산방지 뿐 아니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고단함을 잊은 지 오래다.

민간의 활동도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마을구심체는 무주군 방침을 응원하며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다. 단체와 개인의 기부행렬도 이어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보다 긍정바이러스 전파가 더욱 거세다.

그럼에도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을 종식시키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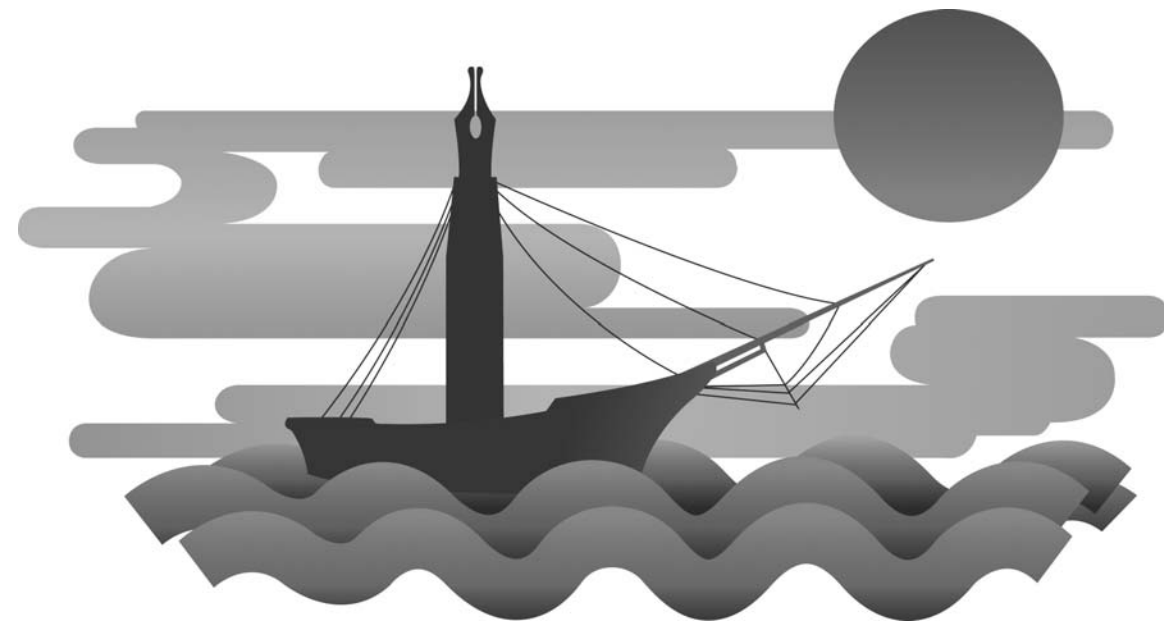
김일권

무주군 이장협의회장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고 있는 시기.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주민 개개인의 공감과 협조다.

주민들이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 생활터를 잃어 공허감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마저 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 그리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